

대학생 핵심역량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차이 분석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mong Core Competency of Collegiat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하정윤*, 김정민**, 강지연***, 차지철***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

Jungyoun Ha(hajy9615@suncheon.ac.kr)*, Jeongmin Kim(lulu@csj.ac.kr)**,
Jiyeon Kang(jyriver@cbnu.ac.kr)***, Jicheol Cha(cha@cbn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에 따른 진로 변인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대학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CESA 진단도구를 통해 대학생 핵심역량을 확인하였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등의 검사 결과를 수집하여 대학 유형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일원변량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학생 핵심역량의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역량은 4년제 대학생들보다 지방 전문대 학생들이,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과 글로벌역량은 4년제 대학생들이 더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변인들은 대학 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로장벽 변인은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이 지방소재 4년제 및 전문대 학생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핵심역량 상위집단 학생들이 하위집단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보였고, 낮은 진로장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에서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진로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진로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한 진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 | 대학생 핵심역량 | K-CESA | 진로준비행동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장벽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for designing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career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by checking the differences among core competency of collegiate and career variables. In order to do that, the core competence of collegiate was identified through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K-CESA), and the survey results ab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barriers were collected. And then the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ifferentiate relationships among core competency of collegiate and career variables, based on the university types and the loca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s and t-tests using the SPSS 21.0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l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llegiate essential skill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Secondly, the students at metropolitan four-year universities feel more difficulties primarily in the variable of career barriers than the students at local universities and students at colleges. Thirdly, the students of high rank at core competence showed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n the students of low rank, and they feel less difficulties in the matter of career barrier. This study shows that in order to support students' career efficiently, it is necessary for each college and university to design career program by considering the core competency and the level of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instead of providing them with a unified and fractional program.

■ keyword : | K-CESA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Barrier |

*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제3회 K-CESA 활용 대학생 핵심역량 학술대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1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4월 05일

수정일자 : 2017년 03월 20일

교신저자 : 김정민, e-mail : lulu@csj.ac.kr

I. 서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역량 모델을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창의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1]. 핵심역량과 함께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 이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 그러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업은 여전히 이론과 지식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학의 진로 프로그램은 단순히 진로검사를 실시하고 단편적인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고 실질적인 도움 정도가 크지 않다 [3-6].

본 연구는 대학생 핵심역량과 진로 변인과의 차이에 기반을 둔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대학의 진로교육은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발달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므로[7],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진로발달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K-CESA)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진로 변인으로 다루고 있는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등을 검사하여[8-13]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다.

먼저,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주요 변인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차원으로써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지에 관한 것이다[14].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5][16].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17][18].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 등을 겪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 등을 말한다[19]. 특히, 진로장벽은 대학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진로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 개인의 삶 속에서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벽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0].

연구변인별 선행연구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탐색행동을 중심 개념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적 차원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14]. 계열별로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사범대, 교육대, 인문·사회대의 순서로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다[21]. 또한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저학년일수록, 이공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일수록 낮게 나타났다[22-25][28].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결정 과제나 진로준비행동을 자신 있게 수행하는 반면, 낮은 대학생은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높다는 점도 확인되었다[28][29].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30].

진로장벽은 개인이나 직무환경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2]. 진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처리, 인지 왜곡, 역기능적인 비합리적 신념 등에 인해 지각된 진로장벽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인지 재구조화를

통하여 진로장벽 요인들에 대한 시각을 수정함으로써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30]. 진로장벽을 더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변인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28][32]와 반대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19].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33],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대한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34].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 등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중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유의한 변인임을 규명하였다[35]. 한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과 부적의 상관이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한 연구도 발표되었다[30]. 이처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해하기보다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로장벽은 개인에 따라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론 촉매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요인들이 진로결정 시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한다고 보고하였다[2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수월하게 한다고 밝힌바 있다[36].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30].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에서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3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준비를 위해 필요한 행동 요소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 기제이며, 진로장벽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수준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생, 지방 소재 전문대학생으로 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진로 관련 변인 수준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대학 소재지와 4년제와 전문대라는 대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38-4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핵심역량은 대학 소재 및 유형(수도권 4년제/지방 4년제/지방 전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진로 변인(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은 대학 소재 및 유형(수도권 4년제/지방 4년제/지방 전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학 소재와 유형(수도권 4년제/지방 4년제/지방 전문대)을 구분하여 교육계열 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K-CESA)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진로 관련 변인에 관한 설문조사는 Google Docs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92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과 진로 관련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진단도구별 설문응답자 기술통계

구분		대학생 핵심역량(K-CESA)		진로 변인(3종)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대학 유형	4년제 대학	77	53.8	45	48.9
	전문대학	66	46.2	47	51.1
소재지	수도권	47	32.9	25	27.2
	지방	96	67.1	67	72.8
성별	남자	24	16.8	15	16.3
	여자	119	83.2	77	83.7
학년	1학년	94	65.7	25	27.2
	2학년	44	30.8	34	37.0
	3학년	5	3.5	33	35.8
합계		143	100.0	92	100.0

2. 조사도구

2.1 한국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K-CESA)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K-CESA)는 대학생 개인의 핵심능력 및 역량정도를 진단하여 대학생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회적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K-CESA를 통해 진단되는 핵심역량은 자기관리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 종합적사고력 등 모두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41]. 각 영역별로 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관리역량 .91,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80, 의사소통역량 .80, 대인관계역량 .91, 글로벌역량 .77, 종합적사고력 .89이다.

2.2 진로 변인 검사 도구

대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진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제한적이거나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1][42].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진로수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4]이 개발한 도구에 문항을 추가하여 보완한 이명숙[2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43]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과

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CDMSES)를 이은경[41]이 타당화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진로장벽 검사 도구는 김은영[20]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KCBD)를 사용하였다.

각 진로 변인들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3, 진로장벽 .95, 진로준비행동 .90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이 대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영역별 T점수를 확인하여 대학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 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핵심역량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역량 수준을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로 관련 변인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역량 수준별 집단 간 진로 변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유형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 분석

K-CESA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수도권 4년제(A), 지방 4년제(B), 지방 전문대(C)로 집단을 나누어 핵심역량의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종합적 사고력을 제외한 각 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관계 역량의 경우 지방 전문대 학생들이 수도권 4년제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원·정보·기술활용 역량(F=16.9***) 및 글로벌 역량(F=8.0***)

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4년제 학생들이 지방 전문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 유형별 대학생 핵심역량 T점수 비교

핵심역량 영역		(A)수도권 4년제 (47명)		(B)지방 4년제 (30명)		(C)지방 전문대 (66명)		F	Scheffe
		M	SD	M	SD	M	SD		
		A-1	48.3	10.1	48.2	8.8	48.6		
자기관리 역량	A-2	46.4	8.5	48.4	10.2	49.6	9.3	1.6	
	A-3	34.8	8.1	35.5	8.6	36.7	7.2	0.9	
	A-4	48.1	10.3	53.7	10.4	55.8	10.0	7.9***	C)A
	총점수	48.3	12.4	50.9	11.5	52.7	10.3	2.1	
대인관계 역량	B-1	51.0	9.5	54.4	11.8	55.7	10.1	2.9	
	B-2	49.5	9.6	52.7	9.9	55.7	8.6	6.3**	C)A
	B-3	50.5	7.4	54.6	8.3	55.0	7.8	5.1**	C)A
	B-4	48.7	9.5	49.9	10.5	54.9	8.9	6.8**	C)A
	B-5	47.6	9.3	50.5	10.4	52.5	8.0	4.1	
총점수	49.7	9.4	53.1	10.0	56.6	9.0	7.4***	C)A	
자원·정보·기술 활용 역량	C-1	54.3	12.2	53.2	11.2	44.3	11.7	11.8***	A)C, B)C
	C-2	54.2	12.0	53.3	9.8	46.9	10.2	7.4***	A)C, B)C
	C-3	50.3	9.3	52.6	8.6	45.5	10.0	6.9**	A)C, B)C
	총점수	52.5	8.1	52.3	7.8	45.4	6.3	16.9***	A)C, B)C
글로벌 역량	D-1	49.1	7.8	47.8	8.8	48.6	8.7	0.2	
	D-2	52.5	8.7	50.4	7.8	45.0	9.7	10.2***	A)C, B)C
	D-3	49.6	8.2	50.1	9.5	43.6	6.3	11.5***	A)C, B)C
총점수	53.1	8.3	51.7	9.5	47.1	7.9	8.0***	A)C, B)C	
의사소통 역량	E-1	53.6	14.5	54.1	13.9	49.9	11.3	1.7	
	E-2	54.5	14.1	55.9	13.3	53.1	12.3	0.5	
	E-3	50.8	7.3	50.8	13.0	48.0	6.8	1.9	
	E-4	48.8	17.0	44.7	10.4	46.2	10.5	1.0	
	E-5	43.5	16.3	36.4	20.5	44.8	10.3	3.3*	C)B
총점수	48.9	11.9	47.3	10.9	43.0	13.0	3.5*	A)B	
종합적 사고력	F-1	52.0	11.2	48.4	6.2	49.0	6.6	2.3	
	F-2	46.5	19.5	45.0	17.0	47.9	9.3	0.4	
	F-3	47.2	18.8	47.8	8.6	46.8	9.0	0.1	
	F-4	42.9	20.0	43.1	17.0	46.2	12.6	0.7	
총점수	51.4	17.1	47.6	11.6	46.9	13.7	1.4		

* α .05, ** α .01, *** α .001

특히, 지방 전문대 학생들은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자기관리 역량 중 직업의식(F=7.9***), 대인관계 역량 중 협력(F=6.3**), 중재(F=5.1**), 리더십(F=6.8**), 의사소통 역량 중 말하기(F=3.3*) 등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자원·정보·기술활용 역량 전 영역(F=16.9***), 글로벌 역량 중 타문화이해 및 수용능력(F=10.2***),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F=11.5***에 대한 이해 등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지방 4년제 대학생들과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대학유형에 따른 진로 관련 변인 분석

대학 유형별로 학생들의 진로 관련 변인(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4년제(A), 지방 4년제(B), 지방 전문대(C)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3]과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학교유형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장벽 영역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F=3.6*), 나이문제(F=3.6*), 신체적 열등감(F=4.6*), 미래불안(F=6.6**) 등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수도권 4년제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대학생들보다 진로장벽과 변인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별 진로변인 및 하위요인 평균차이분석 결과

진로변인 영역	(A)수도권 4년제 (25명)		(B)지방 4년제 (20명)		(C)지방 전문대 (47명)		F	Scheffe	
	M	SD	M	SD	M	SD			
	진로준비행동	3.2	0.7	3.1	0.7	3.3			0.6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목표선택	3.7	0.8	4.0	0.4	3.9	0.6	1.4	
	직업정보수집	3.6	0.8	4.0	0.4	3.8	0.5	1.7	
진로 장벽	문제해결	3.6	0.6	3.1	0.8	3.6	0.7	3.8*	-
	미래계획수립	3.3	0.8	3.6	0.6	3.5	0.5	2.4	
진로 장벽	소계	3.6	0.6	3.8	0.4	3.8	0.5	1.2	
	대인관계의 어려움	2.6	0.5	2.5	0.6	2.7	0.6	0.9	
	자기명확성 부족	2.8	0.8	2.5	0.7	2.5	0.6	1.5	
	경제적 어려움	2.8	0.9	2.1	0.6	2.5	0.8	3.6*	A)B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3	0.6	1.9	0.6	2.1	0.8	1.8	
	직업정보 부족	2.8	0.6	2.5	0.7	2.6	0.6	2.0	
	나이문제	2.2	1.0	1.6	0.7	1.6	0.9	3.6*	A)B, C)B, A)B
	신체적열등감	2.0	0.8	1.4	0.4	1.9	0.7	4.6*	A)B
	흥미부족	2.5	0.7	2.1	0.7	2.3	0.8	1.7	
	미래불안	3.2	0.7	2.8	0.5	2.6	0.6	6.6**	A)C
소계	2.6	0.6	2.2	0.4	2.3	0.5	3.7*	A)B	

* α .05, ** α .01, *** α .001

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진로변인 수준 차이 분석

앞서 분석한 대학생 핵심역량과 진로변인 수준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핵심역량 수준에 따라 진로변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K-CESA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진로 관련 변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핵심역량의 수준을 상위 50%와 하

위 50%로 구분하여 진로변인의 수준 차이를 비교하였다. K-CESA와 온라인 진로변인 설문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의 상하위 집단별 학생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대상 학생들에 대한 특성변인 기술통계량

구분	상위집단		하위집단		합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대학 유형	4년제 대학	21 45.7	24 52.2	45(48.9)	
	전문대학	25 54.3	22 47.8	47(51.1)	
소재지	수도권	15 32.6	10 21.7	25(27.2)	
	지방	31 67.4	36 78.3	67(72.8)	
성별	남자	10 21.7	5 10.9	15(16.3)	
	여자	36 78.3	41 89.1	77(83.7)	
합계	46	100.0	46	100.0	92(100.0)

표 5. 핵심역량 수준별 진로변인 수준차이 분석결과

진로변인 영역	상위집단 (46명)		하위집단 (46명)		t	
	M	SD	M	SD		
진로준비행동	3.5	0.5	3.0	0.7	3.4***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목표선택	4.0	0.5	3.8	0.7	1.3
	직업정보수집	3.8	0.5	3.8	0.6	0.2
	문제해결	3.6	0.7	3.4	0.7	1.7
	미래계획수립	3.6	0.5	3.3	0.7	2.0*
소계	3.8	0.5	3.6	0.5	1.5	
진로 장벽	대인관계의 어려움	2.5	0.6	2.7	0.5	-1.2
	자기명확성 부족	2.4	0.7	2.7	0.6	-2.3*
	경제적 어려움	2.3	0.8	2.6	0.8	-2.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0	0.7	2.2	0.7	-1.7
	직업정보 부족	2.5	0.6	2.7	0.6	-1.6
	나이문제	1.6	0.9	1.9	1.0	-1.5
	신체적열등감	1.7	0.8	2.0	0.7	-1.6
	흥미부족	2.1	0.7	2.4	0.7	-1.7
	미래불안	2.6	0.7	3.0	0.6	-2.6*
	소계	2.3	0.5	2.5	0.5	-2.5*

* ρ .05, ** ρ .01, *** ρ .001

연구대상이 되는 대학생 92명을 핵심역량의 T점수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누어 각각 46명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진로변인 수준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미래계획수립($t=3.4^{***}$), 진로장벽은 자기명확성 부족($t=-2.3^*$), 경제적 어려움($t=-2.0^*$), 미래불안($t=-2.6^*$), 그리고 진로준비행동($t=3.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핵심역량 상위집단 학생들이 하위집단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만, 세부영역 중 미래계획수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 진로장벽은 핵심역량 상위집단 학생들이 하위집단 학생들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도 핵심역량 상위집단 학생들이 하위집단 학생들보다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은 세 개 대학 유형별로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진로변인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수도권 4년제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 관련 변인들에서 핵심역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경우, 핵심역량과 진로변인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학교별 핵심역량 수준별 진로변인 수준차이 분석결과

진로변인 영역	수도권 4년제		지방 4년제		지방 전문대					
	상위 (15)	하위 (10)	상위 (6)	하위 (14)	상위 (25)	하위 (22)				
	M	M	M	M	M	M				
진로준비행동	3.6	2.6	4.7***	3.5	3.0	1.5	3.4	3.2	0.7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목표선택	4.0	3.2	3.3**	4.1	3.9	1.0	3.9	4.0	-0.6
	직업정보수집	4.0	3.1	2.9*	4.0	3.9	0.4	3.6	4.0	-2.3*
	문제해결	3.7	3.4	1.2	3.3	3.1	0.6	3.6	3.5	0.4
	미래계획수립	3.7	2.6	4.0**	3.8	3.6	0.9	3.5	3.5	-0.3
소계	3.9	3.1	4.0***	3.9	3.8	1.0	3.7	3.8	-0.9	
진로 장벽	대인관계의 어려움	2.4	2.8	-2.7*	2.3	2.5	-0.9	2.7	2.7	0.1
	자기명확성 부족	2.4	3.3	-2.9**	2.2	2.7	-1.4	2.4	2.5	-0.5
	경제적 어려움	2.4	3.3	-2.9**	1.8	2.2	-1.5	2.4	2.6	-1.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1	2.7	-3.3**	1.5	2.1	-1.8	2.0	2.1	-0.4
	직업정보 부족	2.6	3.2	-3.0**	2.1	2.6	-2.5*	2.6	2.5	0.4
	나이문제	1.7	2.9	-3.3**	1.4	1.7	-1.1	1.7	1.6	0.1
	신체적열등감	1.7	2.5	-2.7*	1.1	1.6	-3.9**	1.9	1.9	-0.3
	흥미부족	2.1	3.0	-3.6**	1.7	2.3	-2.0	2.3	2.2	0.2
	미래불안	2.9	3.6	-2.9**	2.4	2.9	-1.9	2.5	2.7	-1.3
	소계	2.3	3.1	-4.2***	1.9	2.4	-3.2**	2.3	2.4	-0.5

* ρ .05, ** ρ .01, *** ρ .001

IV. 결론

본 연구는 K-CESA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진로 관련 변인과의 차이를 확인하여 대학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전문대 학생들이 핵심역량 하위 영역 중에서 직업의식과 관련된 역량이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문대의 특성상 졸업 후 진로가 분명하여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면서 직업의식이 함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과 글로벌 역량에서 4년제 학생들에 비해 전문대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 학생들의 진로교육 시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과 글로벌 역량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느 직업군에서나 요구되는 역량이므로, 직업능력의 개발과 직업인 양성을 주된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향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문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자원·정보·기술 활용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장벽 변인에서 주로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이 지방소재 4년제 및 전문대 학생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4년제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분에서 지방 대학생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높아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게 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나이문제와 신체적 열등감도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의 경쟁 구조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불안에 대해 지나

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따라 진로변인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핵심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핵심역량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고 있으며,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4년제 대학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진로변인 영역에서 핵심역량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 4년제 대학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에 비해 진로에 대한 인식이 핵심역량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에서는 대학 유형에 맞는 진로지도를 시행하기 위해, K-CESA 등의 진단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의 핵심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심역량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부족한 역량을 인식하고 이를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재설계, 교과목 및 교수법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최근 대학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핵심역량과의 주요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대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함에 있어 기존의 검사 위주의 단편적인 교육 제공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핵심역량과의 진로발달 수준에 따라 지도할 필요성[7]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과 진로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수도권 4년제, 지방 4년제, 지방 전문대로 구분하였으나 세 개 대학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례 수가 충분치 못한 점이 지역별 차이에 대한 해석이나 핵심역량의 수준을 나누어 분석함에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조사대학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대학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 수도권 전문대의 영역을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자료를 확보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계열의 성격 상 분석대상이 여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분석대상의 계열을 넓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격, 전공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숙정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pp.119-139, 2013.
- [2] 조혜영,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제3권, 제2호, pp.15-30, 2010.
- [3] 고재성, 정철영,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제38권, 제4호, pp.141-160, 2006.
- [4] 김경화,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6호, pp.359-379, 2012.
- [5] 박가열,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pp.181-198, 2009.
- [6] 신소영, 박양근, “대학 신입생의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한 blended learning program 개발 및 운영 사례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59-74, 2006.
- [7] 전은화, 정효정, 서응교, “대학생 핵심 역량 기반의 진로 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293-318, 2015.
- [8] 강정은,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9] 김경하, 대학생의 부모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관계 모형의 남녀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0]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11]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497-508, 2014.
- [12] 이명순, 박현, “전문대학교 언어생활과 학생들의 실습 불안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169-179, 2016.
- [13] 허정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154-164, 2015.
- [14]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15] 윤주영, “진로결정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경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5권, 제1호, pp.101-123, 2000.
- [16] 장기명,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학생지도연구(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제19권, pp.101-132, 1998.
- [17] N. E. Betz and G. Hackett,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pp.399-410, 1981.
- [18] R. J. Reese and C. D. Miller, “Effects of a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course on career

-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4, No.2, pp.252-266, 2006.
- [19] J. L. Swanson, K. K. Daniel, and D. M. Tokar,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pp.219-244, 1996.
- [20] 김은영,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21] 이제경,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 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22] 강희순,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141-155, 2010.
- [23] 김형균,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4] 이형국,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5] 장범식,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6] 전미애,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7] E. Blustein,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Vocational Behavior*, Vol.35, pp.194-203, 1989.
- [28]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9] 이현주,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제38권, 제1호, pp.235-257, 2000.
- [30]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31] T. London,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4, No.1, pp.25-38, 1997.
- [32] Luzzo, “Correlates of mexic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1997.
- [33] 이상희,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2호, pp.375-392, 2007.
- [34] 박용두, 이기학,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4호, pp.1041-1056, 2007.
- [35] 조지혜,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6] 김수리, *부모지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37] 이순환, *평생교육원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8] 손은령,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pp.1-14, 2002.
- [39] 진미석,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1호, pp.105-127, 2013.
- [40] 하정운, 김성재, “전문대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

의 핵심역량 분석 및 IPA 기법을 활용한 전공 및 교직과정 개선 연구,” 제2회 K-CESA 활용 대학생 핵심역량 학술대회, pp.91-126, 2016.

[41] www.kcesa.re.kr

[42] 유순규, 김은주,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K-CESA핵심역량,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pp.1-26, 2016.

[43]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pp.63-81, 1983.

[44]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저 자 소 개

하 정 윤(Jungyoun Ha)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15년 8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정책, 지방교육, 고등교육

김 정 민(Jeongmin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충북대학교 교육사회 및 사회교육(교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학습성과, 역량개발, 평생교육

강 지 연(Jiyeon K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16년 8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영재교육(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영재교육, 교육심리, 고등교육

차 지 철(Jicheol Cha)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15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행정(교육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고등교육, 기관평가, 교육제정